

보도시점 2026. 8. 29.(토) 배포 즉시

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「청년 일자리 회복방안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9.(토) 한국일보, 청년들 “일경험·기업 연결 플랫폼 이미 충분” 정부 대책 회의론

2. 설명 내용

- 「청년 일자리 회복방안」은 청년의 요구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취업 및 근속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
- 정부는 이번 방안을 충실히 집행하여,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
-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이 이번 방안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, 특정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이 균형있게 청년에게 소개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

<일경험 사업은 이미 넘쳐난다는 부분 관련>

- 그간 정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원규모에 비해 높은 경쟁률(‘25년 인턴형 경쟁률 4:1 등)과 만족도(91.2점) 등 청년들의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한 상황
- 또한, 이번 방안에는 일경험 아니라 신산업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, 생산적 공공 일자리 창출, 청년 창업가 양성 등 '30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여 청년의 실제 취업의 기회를 늘리는 노력도 병행중임

<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>

□ 플레이그라운드는 청년이 직업훈련 등을 마친 이후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, 혼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립감, 막막함 등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, 이러한 공백기를 메우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

○ 졸업 후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멘토링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신규로 도입 추진

* 청년들의 목소리(4.29. 청년뉴딜 보고회 등)

“졸업 후 갈 곳이 없고 커뮤니티가 필요함. 현직자와 만나고 싶은데 인프라 부족”
“멘토와 또래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확대가 필요”

□ 특히, 이번에 신설되는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과 일손이 필요한 기업의 일감을 매칭하는 등 현장경험을 제공하고, 청년들 간 네트워킹, 취업 선배, 기업 현직자와의 멘토링, 커뮤니티 형성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

<지방 중소기업 청년 지원 관련>

□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와 함께 생활·교통·교육·문화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□ 특히, 지역 청년이 임금 격차 등으로 수도권내 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,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취업하고 성장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강화

□ 또한, 이번 방안에는 임금격차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 등 자산형성 지원,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, 문화선도산단 조성 등 근로·정주여건 개선,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를 통한 세후소득 증진 등 지역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음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웅 (044-215-2840)
		담당자	사무관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 최윤미 (044-202-7420)
		담당자	사무관 천민정 (mjoymj@korea.kr)